

성도의 교제 |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1. 실만한물가 교회 부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 2024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3. 매주 토요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식품/갤러리아 앞) 문의: 김윤규 목사

4. 새벽 예배는 화, 수, 금요일에 드려집니다(레위기 강해).

5. 손금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 드립니다.

6. 요한복음 20 장 31 절 (2024 년 4 월 성경 암송 구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7.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채널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부활 후 첫번째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15 장 (통 55)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35. 시편 81 편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찬 315 /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42 장 (통 11) 김윤규 목사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John) 21:15-17 (p. 185) 인도자

설교 Sermon 김윤규 목사

사랑으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Feed Jesus' sheep with love

*찬 송 Hymn 304 장 (통 404)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말씀 노트 || 사랑으로 양을 먹이라

(요 21:14)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 21: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 21: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 21: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5-16 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하다'는 동사: '아가파워'로 신적 사랑
15-16 절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하다'는 동사: '피레오'로 인간적 사랑
17 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하다'는 동사: '피레오'로 인간적 사랑
17 절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하다'는 동사: '피레오'로 인간적 사랑

(요 5: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피레오)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 목회와 삶 ||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첫 번째 부활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고(마 27:63)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까봐 경비병들을 세웠지만, 제자들은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막 8:31; 9:31; 10:34)를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였지만 그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첫 번째 부활절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요 20:22)라고 말씀하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음에도(요 20:24-29)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증인의 삶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요 21:3).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눅 5:5) 베드로와 제자들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요 21:3). 바로 그 때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요 21:6)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전해야 하는데, 세상을 두려워 해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20:31), 우리들도 '복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사실을 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롬 4: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